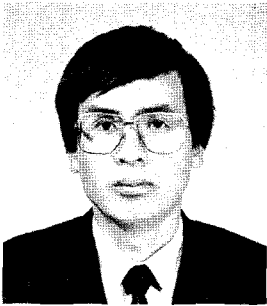


솔 나 물

(*Glaium verum var. asiaticum* NAKAI)



정연권
구례군 농촌지도소

솔 나물은 꼭두서니과에 속하는 숙근초다. 전국산야에 자생하고 잎이 솔잎을 닮았다고 하여 솔나물이라 부른다.

절화(건화) 및 화단용으로 적합하고 식용 및 약용으로도 사용되는 자생하다.

형태 및 특성

초장은 70~100cm 정도. 엽액과 줄기끝에 잔가지가 갈라져나와 지름 2.5mm 정도되는 작은 꽃이 원뿌리꼴로 뭉쳐서 핀다. 사진1처럼 뜨거운 여름태양 아래 황금 빛으로 찬란히 빛나는 꽃은 십자꼴이며 향기가 있어 꿀벌과 나비가 다투어 찾아온다.

줄기에는 약간의 잔털이 나있고 마디마다 8~10매의 잎이 운생한다. 이중 가운데 두장만 참잎이고 나머지는 받침잎이다. 잎은 선형이며 길이 2~3cm, 나비 1.5~3mm로 뒷면에 털이 있다.

열매는 2개씩 달리고 곁에 털이 없으며 분과는 편원형이다.

함유성분은 밝혀진 것이 없으나 해열, 해독, 조혈 등의 효능을 가지고 있다. 감기, 인후염, 황달, 피부염, 종기 치료약으로 사용되는데 생약명으로 황미화(黃米花)라고 한다. 봄철 어린순은 다소 쓴맛이 있으나 우려내어 나물로 먹으며 꽃은 황색염료로, 뿌리는 적색염료로 사용된다.

솔나물의 유사종은 <표>와 같이 6종이 자생하고 있다.

번식방법

실생 10월중하순경 종자가 익으면 채취하여 10일정도 음건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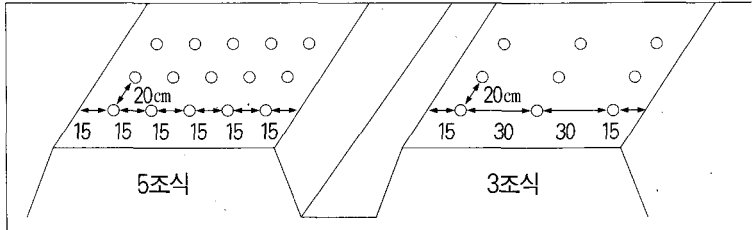
유사종의 종류와 특징

종 명	특 징	종 명	특 징
흰솔나물	꽃이 백색	털있솔나물	잎에 털이 있음
개솔나물	진한황록색. 다소 연약	흰털솔나물	연한 황록색. 지방에 털있음
털솔나물	지방에 털이 있음	애기솔나물	전체가 소형. 초장 10~20cm

다음 가볍게 털어서 건조저장 하여 3월중하순에 파종한다. 노지에 파종해도 무방하나 건조육성을 위해서는 파종상자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종자 2~3배로 복토하여 충분히 관수하고 신문지로 덮어서 주간 25~26°C, 야간 10°C 정도를 유지하면 4주 정도면 발아한다. 발아율은 약 70% 정도로 생각된다. 발아후에는 상토가 건조되지 않도록 하고 사진2처럼 본엽 5~6매가 되면 16공연결포트나 9cm 포트에 가식한다. 노력을 줄이려면 조파하여 본엽이 7~8매 정도 될 때 본포에 정식해도 된다.

삼목 새순이 자라서 초장 15cm내외가 됐을때인 4월중순경이 적기이다. 길이는 6~7cm 정도로 잘라서 중간정도 까지 잎을 제거하고 자른 부위에 루틴이나 옥시베론을 묻혀 깨끗한 모래에 2×3cm간격으로 총총히 꽂는다. 관수후 30%차광망을 설치해두면

그림1. 솔나물 정식요령



30여일 지나 발근하는데 발근율은 80~85% 정도이다. 사진3처럼 발근된 묘는 본포에 직접 심거나 포트에 가식후 심도록 한다. 생장은 실생보다 빨라서 첫째에 하우스에 심어 3월상순경에 삼목, 4월중순경에 본포에 심으면 6월하순경 탐스럽고 사랑스런 꽃을 볼 수 있다.

절화(건화)재배

꽃대가 길어 절화로 가능하고 단위수량도 많아서 경제적 가치가 크다. 또한 스타치스와 비슷하여 같이 사용하거나 대용으로 쓸수 있겠으나 절화후 1시간 정도만 지나면 시들어 버리는 것이 흠이다. 그러나 꽃색이 황색이고 진한 향기가 있어서 건화로써 적합하지 않나 생각된다.

어느 토양에나 잘 자라지만 배수가 잘 되고 햇빛이 잘드는 곳이 좋다. 10a당 퇴비 1,500kg, 18-18-18복비 75kg을 살포하고 잘 경운후 로타리작업을 하고 90cm의 두둑을 만들어 흑색 멀칭을 한다.

정식은 4월중순경에 그림1과

같이 15×20cm(5조식)으로 심는데 10a당 13,500주가 들어간다. 그러나 이 방법은 3년정도후 중간묘를 솎아내야 하고 밀식되어 꽃대가 연약해진다. 한 포장에서 4~5년 재배하려면 30×20cm(3조식)로 심는데 이 방법은 1~2년차에 수확량이 적다. 묘 소요량은 5,400주이다.

꽃대가 약해 잘 쓰러지므로 5월상하순경에 15×15cm 네트망을 이용하여 네트를 치도록 한다.

절화는 전체가 90%이상 개화됐을 때 꽃가위로 잘라 즉시 물올림 작업을 하고 출하도 물통에 담아서 해야한다.

건화는 수확즉시 결속한 후 햇빛이 들지않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약2주일정도 음건하고 다시 1~2일 정도 햇빛에 바싹말려서 출하하거나 보관한다.

화단지배

솔나물 꽃의 특성을 잘 살릴수 있는 방법이다. 정원에 집단으로 심으면 한 여름의 뜨거운 햇빛과 신록이 어우러져 정원이 한결 밝고 활기에 넘치며 사랑과

사진1. 활짝 핀 솔나물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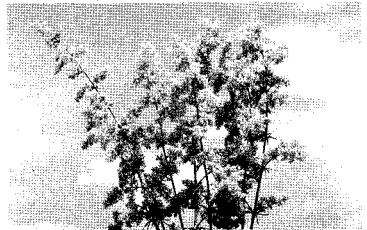


사진2. 가식적묘



사진3. 가식, 정식 적기의 삼목묘



평화로움을 가득 안겨준다.

정원에 심을 때는 방사형이 좋다. 중앙을 약간 높게(20cm 정도)하여 원추리를 심으면 개화기가 같고 원추리의 늘어진 잎이 한결 관상가치를 높여준다. 또한 꽃색갈도 같아서 집단적인 웅장함을 느낄 수 있다.

가로화단에 심을 때는 20×30cm(2조씩)로 하되 지그재그 형태로 심는다. 밀식하거나 비료를 많이 주면 쓰러져서 관상가치가 떨어지므로 주의한다. 기타 관리는 절화재배에 준한다. **농약정보**